

뜨거워진 순천·곡성... '3당 빅매치' 재보선 최대 격전지 부상

새누리, 이정현 前 수석 "지역구도 타파" 출마 밝혀 새정치연합 "민심 부응하는 후보 선출 뒷받침 지킬 것" 진보당 "당력 집중 교두보 유지"... 이정희 출마설도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뒷받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팽팽한 삼각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수석은 1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순천·곡성 재보궐 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다"며 "곡성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며 공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지역구도 타파를 통해 호남의 변화는 물론 당선을 목표로 선거 혁명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전 수석의 경쟁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이 고향인 이 전 수석은 지난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광주·전남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 챙기면서 진정성을 평가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수석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시 서구 을에 출마, 아권연대 주자인 오병은 통합진보당 후보에 석패했지만 39.7%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 전 수석이 출마한다면 일당 독점 구도에 머물렀던 호남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정현 전 수석은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처럼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에서 그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순천·곡성 재보궐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심판론'을 앞세워 지역구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노준규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에 패배한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후보 경선에 서부터 흥행을 일으키면서 지역 민심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친노(친 노무현)를 상징하는 서갑원 전 의원이 이번 주 북당과 함께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며, 안철수 공동대표 진영의 구희승 변호사와 정표수 예비역 공군소장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관규 전 순천시시장도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조순용 전 청와대 정부수석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 패배는 충격, 그 자체였다"며 "순천 민심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를 선출,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당력을 순천·곡성에 집중, 전남의 교두보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정희 대표의 출마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를 내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병은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정희 대표의 출마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 후보를 선출한 뒤, 모든 당력을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임 당직자들과 오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 신임 전략홍보본부장, 김 대표, 안 대표, 주승용 신임 사무총장. /연합뉴스

총동원해 다시 한 번 승리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심이 여전한지는 미지수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2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인한 총보 논란의 여진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공천, 이길 수 있는 후보 뽑을 것 경선이 원칙, 전략공천 논의는 시기상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중앙당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공관위원장(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주 총장은 15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와 호남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관위는 언제 가동되나.
▲공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16일 지도부에 보고하고 즉시 활동에 들어간다.

-공관위 구성은.
▲구 새정치연합이 5명, 구 민주계 6명, 당연직인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비후보 접수 시기는.
▲공관위가 구성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시한으로 17일부터는 시작할 생각이다.

-후보 자격심사는 언제 이뤄지나.
▲예비후보 접수를 마치고 자격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 내

에 자격심사를 시작, 다음 주 초반에는 자격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선은 언제 시작하나.
▲자격심사를 마치고 후보 압축 등이 이뤄지면 지역별 상황 등을 보고 경선을 바로 실시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경선이 원칙인가. 전략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공천이 없다는 것인가.
▲예비후보 접수도 안 된 상황에서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경선 방법은.
▲재보궐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 민심을 듣는데 주력하겠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경선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경선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후보는 언제 선출하나.
▲7월 초순에는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6월말에는 경선이 실시된다는 것인가.
▲7월 첫째 주나, 늦어도 두 번째 주에는 경선이 마무리될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재보선 4곳 예비후보 등록 달랑 1명 왜?

공천방식 등 결정 안돼 출마예정자들 물밑 저울질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4곳의 지역구 출마예정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려한 이력의 출마예정자들이 '장외'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기회인 예비후보 등록은 미루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세를

감안, 이들이 경선, 전략공천 등 공천방식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7·30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뒤 전국 14개 선거구에 모두 37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3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과 대전 대덕구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광산 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등 3곳에는 예비등록한 후보가 없었으며, 담양·함평·영광·장성에는 전 전남도위원을 지낸 김보(71)씨가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유일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방식이 결정된 뒤 후보자 간 이합집산이나 출마 포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0~11일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이 돼서야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은 7월17일부터 시작되며, 6·4지방선거와 같이 7월25일부터 26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전 화 | 062) 228-1199
주 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20:00 (연중 무휴)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평산구 월계동 첨단C타워 1층)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원점 (수원동 국민은행사거리 우림백화점 1층) 062)955-523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허니문너를 위한 9월 출발 허니문상품

무인출발, 연길직항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 백두산

6월 27일(금) ~ 8월 18일(월)
매주 월요일 (4박 5일) / 금요일 (3박 4일)

하나투어 단독 특전

- 백두산 감흥을 그대로, DVD 제공
- 백두산 생수, 백산수 제공
- TOUR DE CAFE 음료 쿠폰 제공
- 두만강변에서 먹는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 주스가 제공 되지 않을 경우, 약기스로 대체 합니다.)

※ 전세기 항공 운항 스케줄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NFF9]-MU1	[CNFF9]-MU1/MU2
[7]주말 연길/백두산 4일 *북파코스* 799,000원 ~	[7]주말 연길/백두산 4일, 5일 *북파코스/서파코스* 1,099,000원 ~
출발일: 매주 금요일	출발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OPEN EVENT!

방문 EVENT!
허니! 투로드 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통! 여행용 트래블 락 증정

예약 EVENT!
허니! 생당 최대 하나투어 50만 마일리지 적립
통! 생당 10만원 상품권 제공
생! 지역별 다양한 특전 및 추가 할인 제공
맛! 필립스 전기 포트 제공
다! 영화 예매권 제공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공항이용료, 전생보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어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착이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지의 사전 통리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중로구점) ■관광발전신고 Tел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패키지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